교회소식

- 교우협력부
  - 송윤칠 성도께서 지난 25일(금) 오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안식에 들게 하신 주님께서 유족들에게도 위로하시기를 빕니다.
    장례예배: 10월28일(월) 저녁 8시
    Pleasant Manor Funeral Home. 575 Columbus Ave., Thornwood, NY 10594
    발인예배: 10월29일(화) 오전 10:30
    하관예배: 10월29일(화) 오전 11:30
    Kensico Cemetry. 273 Lakeview Ave., Valhalla, NY 10595
  - 성경퀴즈대회는 한 주 연기해 11월3일 주일에 갖겠습니다.
- 선교부
  - 2020년 세광교회 단기선교 광고
    기간: 2020년 2월17일 – 22일(Presidents Day Week)
    장소: Honduras (최문재 선교사)
    신청 마감: 2019년 12월15일
  - 뉴욕세광교회 10월 선교사 기도편지가 헌금함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
  - **Sight & Sound Trip** (Nov. 2nd)
    교회에서 아침 6:30 출발. 관람시간은 11:00, 2pm 점심 식사. 저녁 6:30 도착 예정입니다.
- Daylight Saving Time (DTS, 섬머타임) 이 다음 주일(11/3) 해제됩니다. 시계를 한 시간 늦추시면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

10월 안내: 이향복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김민아 집사 (시편 119:137-144)
이번 주 친교: 이현주 집사, 최은정 집사
다음 주 친교: 송은주 집사, 노미라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이정석(WEC 본부),
장영호(러시아 미전도 종족),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19권 41호 2019년 10월 27일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창세기 성경공부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 **2 Timothy 3:14-17** ---------- Pastor Kim
Sermon ---------- **"Face of the Message"** ---------- Rev. Lee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 "I Love You Lord"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266장(통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 다함께
Hymn O Now I See the Cleansing Wave

대표기도 ---------- 시편 65 ---------- 김병규 집사
Prayer Psalm 65

찬양 ---------- "주님여 이손을 꼭잡고 가소서"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이사야 49:1-7** ----------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49:1-7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여호와의 종, 이방의 빛"**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550장(통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함께
Hymn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Morning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 여호와의 영광 이사야 48:1-22

"내 백성을 위로하라"며 시작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역사적 맥락과 영적인 의미에서 이중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선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벨론이 패망하고 노예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역사적 해방이 이스라엘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스스로의 완악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벨론의 패망을 이뤄낼지라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순종하는 종, 메시야가 오셔야 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이래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도 깨닫지 못했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또다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이제는 드디어 듣고 보라고 하십니다.

오래도 참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풀무불 속에서도 다 태우지는 않고 건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자기 이름 때문이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째서 그 거룩을 당장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력한 듯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자기 영광입니까(출 34:6-7)?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다고 그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도 없고, 불순종했다고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만큼 행복한 게 부모입니다. 가장 못난 자식만큼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언약을 맺어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에 자기 영광을 걸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어코 구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러워진 하나님의 명예를 씻는 공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영광 돌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만왕의 복종보다, 천군천사의 찬양보다, 범죄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입니다.

Memo